

다차원적 종교성/영성척도 단축형 한국어판의 타당화

윤혜영¹, 김근향^{2*}

¹계명대학교 심리학과, ²대구대학교 심리학과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Brief Multidimensional Measure of Religiousness/Spirituality Scale

Hyae-Young Yoon¹, Keun-Hyang Kim^{2*}

¹Department of Psychology, Kei-Myoung University

²Department of Psychology, Daegu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Fetzer/NIA(1999)에서 개발한 다차원적 종교성/영성 척도-단축형(Brief-Multidimensional Measure of Religiousness/Spirituality Scale; BMMRS)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대학생, 대학원생과 종교를 믿는 일반 성인 286명을 대상으로 BMMRS 영적 웰빙척도(Spiritual Well-Being Scale, SWS), 한국판 영성 척도(Korean Sprituality Scale, KSS), 펜실베니아 걱정질문지(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PSWQ),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척도(Intolerance of uncertainty Scale, IUS)를 실시하였다. BMMRS의 요인구조를 주축분해법, 사각 회전으로 분석한 결과, 기존 연구에서 제안되었던 긍정적 영적 경험, 부정적 영적 경험, 용서, 종교활동, 긍정적인 종교지지, 부정적인 종교지지 6요인 구조가 확인되었고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 적합도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각 소척도의 내적일관성(.64~.97)과 검사-재검사 신뢰도(.72~.88) 역시 적절하였다. 이 결과는 한국판 BMMRS가 적절한 심리 측정적 지표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향후 영성과 종교성 및 정신건강의 관련성 연구에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 **Key Words** : 다차원적 종교성/영성척도, BMMRS, 요인구조, 타당도, 정신건강, 융합적 종교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validate Fetzer Institute & National Institute on Aging Working Group[NIA](1999)'s Brief-Multidimensional Measure of Religiousness/Spirituality Scale (BMMRS) in Korean adults. The Korean version of BMMRS, Spiritual Well-Being Scale(SWS), Korean Sprituality Scale(KSS), 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PSWQ), and Intolerance of uncertainty Scale(IUS) were administered to the 286 students and community samples. A principle axis factoring analysis with direct oblimin rotation and Kaiser normalization identified a six-factor solution accounting for 66.24% of the variance in scores, labeled as: positive spiritual experience, negative spiritual experience, forgiveness, religious practices, negative congregational support, and positive congregational support.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6 factor model of BMMRS have a good fitness. Also, the internal consistency(.64~.97) and the test-retest reliablity was adequate.(.72~.88) Korean version of BMMRS has adequate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so it can be used to verify the effects of various compassion-related psychotherapeutic approaches.

• **Key Words** : Brief Multidimensional Measure of Religiousness/Spirituality Scale, BMMRS, Factor Structure, Validity, Mental Health, Convergent Religiousness

*교신저자 : 김근향(kh.kim@daegu.ac.kr)

1. 서론

전통적으로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영성(spirituality)’을 과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다루지 않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물질적 풍요와 과학적 진보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21세기에 들어서도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재해와 재난 그리고 신종 질병들이 발생하고 그로인해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초래되는 가운데 정신건강 분야에서도 그 동안 간과되어 왔던 초월적이고 영적인 영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영성을 정신건강 향상에 접목시키려는 연구들[1,2,3,4,5,6]이 등장하고 있지만 영성과 정신건강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일관되지 않다[1]. 영성과 정신건강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에서, 영성은 정신건강에 건강효과나 병리효과가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정신건강과 관련된 영성 연구에서 이와 같이 비일관된 결과가 산출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각 연구들에서 적용한 영성에 대한 정의나 영성 측정에 사용된 도구의 다양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는 영성과 정신건강의 관계에 대한 일관되지 않는 연구결과들을 통합하기에 앞서 정신건강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영성에 대한 적절한 개념화와 그에 맞는 영성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영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역사는 짧지만 영성은 심리학이나 정신의학 분야에서보다 종교계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시각으로 다루어져 왔던 만큼 누적된 정보들을 반영한 합의를 개념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정신건강 분야에서 영성을 적용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영성에 대해 보다 엄밀한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한 실증적 연구들을 수행하는 것이 영성의 개념화에 필요한 하나의 경험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성의 측정에 주목하고 그와 관련된 이슈들을 논의한 뒤, 여러 척도들 중에서도 Fetzer Institute and National Institute on Aging Working Group(FINIAW)의 ‘다차원적 종교성/영성척도의 단축형(Brief-Multidimensional Measure of Religiousness/Spirituality Scale; BMMRS)’의 한국어판을 타당화하여 해당 척도를 국내 정신건강 분야에서 사용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타당한 영성 연구를 위해서는 영성을 제대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영성 측정에 앞서 영성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3가지 이슈를 고려해야 한다[1].

1) 영성과 종교성의 구분 2) 영성/종교성 내에서의 여러 차원들 3) 영성/종교성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첫째, 영성과 종교성은 모두 우리 삶에 초월적 차원이 존재한다는 믿음에 근거한다[7]. 그러나 이 두 개념은 각기 서로 다른 측면을 반영하는데, 영성은 인간과 성스러운 존재의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며, 그런 관계에 기반한 덕성을 의미한다. 그에 비하여 종교성은 성스러운 존재에 대한 숭배를 포함하고 있으며, 숭배행위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8]. 둘째, 종교성과 영성은 단일 차원이 아닌 몇 가지 차원 또는 다양한 측면으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보편적인 견해이다. 예를 들어 Firman과 Vargiu[9], Morberg[10]는 영성을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으로 구분한 것에 비해 Gorsuch[11]은 영성을 성향적 차원과 조작적 차원으로 위계화시켜 개념화한다. 차원적 접근의 경우에는 영성 그 자체에 초점을 둔 차원과 종교 및 영성을 삶에 적용하여 특정 행위에 참여하는 실제적인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조작적 수준의 영성은 다면적이며 그 측면은 동기, 대처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셋째, 영성과 종교성은 긍정적인 측면 외에 부정적인 측면 또한 포함한다는 것이다. Paragament[12]는 영성을 추구할 때 사람들은 건설적인 경로뿐만 아니라 파괴적인 경로로 영성을 추구할 수도 있다고 하며 영성이 반드시 선(goodness)을 가정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최근에 대두된 긍정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영성을 성격강점 및 덕성으로 간주하여 영성 자체를 긍정적인 것으로 개념화하고 있지만 영성이 독자적인 기능을 하는 것인지 다른 성격특성이나 종교의 한 요소로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13]. 영성 또는 종교성과 정신건강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들 역시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지 않고 있다. 이는 영성 또는 종교성과 정신건강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매개변인이나 중재변인의 존재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3가지 이슈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영성의 측정은 최소한 상기 이슈를 포함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일 것이다. 즉 종교성과 영성을 평가하는 측정도구는 1) 종교성과 영성을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고 2) 종교성과 영성 각각의 개념 안에서 다양한 차원을 포괄하며 3) 종교성과 영성의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까지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다차원적 종교성/영성 척도(BMMRS)[14]는 이와 같은 요구에 잘 부응할 수 있

는 척도로서 종교성과 영성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이다. 게다가 40문항으로 구성된 단축형은 시행이 간편하면서도 신뢰도와 타당도가 매우 높은 척도로서 영성과 종교성을 보다 포괄적이고 안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영성이나 종교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영적 웰빙척도(Spiritual Well-being Scale)[15], 종교적 지향성 척도(Religious Orientation Scale)[16] 등이 번안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해당 척도들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며, 한국인을 위한 영성척도[17]가 개발되었으나 이는 영성 연구에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영성은 문화적 배경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각 문화권마다 영성의 구성요소가 상이할 수 있다. Westgate[18]는 영성과 영적 건강에 대한 구성요소들을 서술한 서양의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통합하여 영성의 구성요소를 삶의 의미/목적, 내적 가치, 초월적 신념/경험, 공동체/관계로 정리하였다. 이에 비해 이경열 등[17]은 동양적 사고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한국인에게 적합한 영성척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동양 영성의 구성요소에는 상기 4가지 요소 외에 자각과 자비/봉사심이라는 요소가 포함된다고 강조하였다. 자각과 자비는 불교에 기원을 둔 개념으로서 자신의 내면세계에 개체가 개체-환경의 장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내적, 외적 사건들을 지각하고 체험하는 것을 의미한다[19]. 자비는 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베푸는 삶을 말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보시를 실천하는 것이 행복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의 영향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적 종교성/영성척도의 단축형과 기존의 영성척도들 외에 한국인을 위한 영성척도[17]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에서 다차원적 종교성/영성척도를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국어판 BMMRS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BMMRS는 종교성 하위척도 3개(일상적 영적 체험, 가치/신념, 용서, 헌신), 영성하위 척도 4개(개인적 종교 활동, 종교적 지지, 공동체적인 종교활동), 종교성과 영성이 결합된 하위척도 2개(종교적/영적 대처, 종교적, 영적 이력)의 총 8개의 이론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BMMRS의 내적 일치도는 .71~.87에 이르는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20,21,22,23]. Idler 등[24]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BMMRS 자료를 분석한 결과, 9개의 독립적인 요인구조가 도출되었고 각 요인은 다음

과 같다: 종교활동(Religious practices), 헌신(Commitment), 긍정적인 공동체 지지(Positive Congregational Support), 종교성/영성 경험의 강도(Intensity of Religious/Spiritual Experience), 신념(Belief), 그리고 일상적인 영적경험(Daily Spiritual Experiences). 하지만 위 연구에서 요인분석을 시도했을 때 BMMRS의 모든 문항을 포함하지 않았고, 요인 추출 과정 역시 주성분 분석을 통해 요인을 추출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Idler 등[24]의 연구에서 사용된 동일 자료에 대해 Neff[25]가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동시에 시행한 결과, BMMRS의 적합도 지수는 수용할만한 수준이었다. 원척도의 하위척도 분류와는 달리 일상적인 영적경험(Daily Spiritual Experiences)과 가치/신념(Values/Beliefs) 척도는 각각 단일 요인으로 분류되었고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용서(Forgiveness) 척도가 단일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대학생/대학원생들 뿐만 아니라 약물남용을 치료받고 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도했을 때,26) 의미(Meaning), 영성(Spirituality), 종교활동(Religious Practices)이라는 3개의 일차 요인과 2개의 이차 요인(죄책감-신의 은총(Guilt/God's Grace), 신의 사랑과 용서(Loving/Forgiven God))이 도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가치/신념(Value/Beliefs)과 종교적/영적 대처(Religious/Spiritual Coping)와 같은 하위요인은 도출되지 않았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27]에서는 3개의 요인(영성(Spirituality), 종교성(Religiosity), 영적 고통(Spiritual Distress))이 도출되었다. 암이나 뇌졸중과 같은 건강문제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28]에서는 긍정적인 영적경험(Positive Spiritual Experience), 부정적인 영적경험(Negative Spiritual Experience), 용서(Forgiveness), 종교활동(Religious Practices), 긍정적인 종교적 지지 (Positive Congregational Support), 부정적인 종교적 지지(Negative Congregational Support)의 6요인 구조가 시사되었다. 이러한 6요인 구조는 뇌손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29].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요약했을 때, BMMRS에 대한 요인분석 연구결과들은 연구대상과 요인분석 방법과는 상관없이 영성과 종교성 관련 요인 각각이 일관되게 도출되었고, 그 외 몇 개의 추가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추가 요인으로는 용서(Forgiveness)가 여러 연구에서 나타났

다. 또한 비교적 최근 연구에서는 영성과 종교성의 긍정적 측면 이외에 부정적 측면과 관련된 요인이 산출되어 보다 다각적으로 종교성과 영성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21,28,30].

본 연구에서는 BMMRS 한국어판에서도 서양의 연구와 같은 요인구조가 도출될 것인지 아니면 한국의 문화특수적 요인의 영향으로 인해 원척도에서 제안한 하위척도나 선행 연구에서 도출된 요인구조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낼 것인지를 탐색하기 위해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구조의 모형 적합성을 평가할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 진행된 대부분의 영성 연구들의 경우, 종교성에 초점을 두고 종교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경우가 많으므로 종교의 종류와 무관하게 활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의미의 영성과 문화적 배경을 감안한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종교인을 표집하여 척도를 타당화 하였다. 또한 정신건강과 영성/종교성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개발된 영성척도와 상관계수뿐만 아니라, 영성과 관련된 정신건강 척도인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과 일상적인 불안 수준이 영성이나 종교성에 어떻게 관련되는지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탐색적 요인분석 및 척도 타당화를 위해서 대학(원)생 및 일반 신도 286명에게,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서 일반인 119명에서 설문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1차 설문지의 경우 서울 소재의 K 대학교, 부산 소재의 P 대학교 및 대구 소재의 K 대학교에서 재학하는 대학(원)생 174명과 교회, 성당, 절에 다니고 있는 일반 신도 112명(기독교, 가톨릭교, 불교)을 대상으로 2012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설문 실시하였다. 연구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작성한 총 293명 중 두 가지 이상의 척도에 특정 점수 하나로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86명(남자 69명, 여자 217명)의 자료만 분석에 포함시켰다. 이들 중 남자 대학 및 대학원생의 평균 연령은 25.58세(SD=2.53) 여자 대학 및 대학원생의 평균 연령은 25.96세(SD=8.79)이었다. 남자 신도들의 평균연령은 34.06세(SD=8.95) 여자 신도들의 평균연령은 45.47세(SD=15.95)이었다. 이들 중 미혼 197명(68.9%), 기혼 87

명(30.4%), 사별 및 이혼 2명(0.6%)이었으며, 학력은 중졸 이하 0명(0%), 고졸 1명(0.3%), 대졸 131명(45.8%), 대졸 72(24.2%)명, 대학원재 35(12.2%)명, 대학원졸 이상 39명(13.6%)이었다. 대학생 및 대학원생 중 종교가 있는 사람을 종교인으로 분류하고, 무교인 사람을 비종교인으로 분류한 결과, 개신교 61명(21.3%), 불교 70명(24.5%), 가톨릭교 27명(9.4%), 종교 없음 124명(43.4%), 기타 1명(0.3%), 무응답 3명(1.0%)이었다. 한국갤럽31)의 조사에서 한국인의 종교 인구 분포가 개신교 21%, 불교 22%, 천주교 7%, 비종교인 50%라고 조사된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무교의 비율이 다소 낮은 편이나 대한민국 전체 종교 인구의 비율과 거의 유사하게 표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서 대구 소재의 일반인 집단 119명(남자 26명, 여자 93명)에게 온라인 방식으로 BMMRS 척도를 실시하였다. 남성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27.24세(SD=3.15) 여자 응답자들의 평균연령은 27.43세(SD=7.07)이었다. 이들의 종교 분포는 개신교 54명(45.4%), 불교 18명(1.9%), 가톨릭교 7명(0.7%), 종교 없음 34명(28.6%), 기타 6명(0.6%), 무응답 3명(1.0%)이었다.

2.2 방법

2.2.1 척도제작 및 평가과정

BMMRS의 한국어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원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Fetzer Institute/NIA에게서 척도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심리학 박사이며 현장 실무경력 10년 이상의 임상심리전문가 자격 소지자 2인이 우리말로 번역하고 임상상담전공 박사 과정이며 정신건강 관련 자격증 소지자 3명에게 내용을 확인 및 반복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제작된 문항들을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개신교 목사에게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역번역하였다. 서구 기독교 문화권과 기타 다른 종교와의 차이를 고려하여 신(God)에 대한 의미는 존재(Being)로서의 하나님, 절대자의 느낌으로 번역하였고, 예배(worship)나 성도(congregation)와 같이 특정 종교에 편향된다고 판단되는 언어 역시 기도, 신자와 같은 용어들을 혼용하여 사용하여 모든 종교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번역하였다. 이후 대학생 및 대학원생, 일반 신도들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척도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를 위해 종교 및 영성척도, 정신건강 척도가 포함된 설문지 배터리를 실시하였으며, 이 설문지는 수기로 작성되었다. 이

후 BMMRS 척도의 한국어판 요인구조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서 BMMRS 척도만 온라인 형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하였다. 모든 연구의 절차에 대해서 교내 연구비 승인 기관의 심의를 거쳐 진행되었다.

2.3 평가도구

2.3.1 펜스테이트 걱정척도(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PSWQ)[32,33]

범불안장애의 주증상인 만성적이며 통제불가능한 걱정의 빈도 및 강도를 평가하는 16문항 5점 척도(1점~5점)로, 총점이 높을수록 걱정이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93이었다.

2.3.2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척도(Intolerance of uncertainty Scale; IUS)[34,35]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과 관련된 개념을 측정하는 12문항 4점 척도(1점~4점)로, 총점이 높을수록 불확실함을 견디지 못하는 성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94였다.

2.3.3 한국어판 영적 안녕 척도(Spiritual Well-Being Scale; SWS)[15,36]

종교적 안녕(Religious Well-Being Scale: RWS)과 실존적 안녕(Existential Well-Being Scale: EWS)을 평가하는 20문항 6점척도(1점~6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영적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93이었다.

2.3.4 한국인을 위한 영성척도(Korean Spirituality Scale; KSS)[17]

초월성, 삶의 의미와 목적, 자비심, 내적자원, 자각, 연결성과 같이 한국인의 상황에 맞는 영성을 측정하는 30문항 5점 척도(1점~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영성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89였다.

2.3.5 영성과 종교에 대한 다차원적 척도(BMMRS) [14]

원판 BMMRS에 포함된 하위척도 중 4가지-종교적/영적 이력, 헌신, 종교적 선호, 전반적인 자기 순위-의 경우, 응답 양상이 요인분석에 부적절한 형식으로 구성되

어 있어서 이후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예-아니오 응답,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금액 평균, 종교에 헌신하는 시간에 대한 질적인 기술). 아래에 기술된 원판 BMMRS 하위척도는 최초 이론적 개념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서, 점수가 낮을수록 높은 수준의 영적 종교적 상태임을 시사한다.

① 일상적인 영적경험. 개인이 일상적인 삶에서 신이나 신성한 존재, 절대자와 같은 초월의 경험이나 그 존재와 상호작용하는 경험을 얼마나 느끼는지를 측정하는 6점 리커트 척도이며 6문항으로 구성된다. ② 의미. 삶의 의미에 대한 생각을 측정하는 4점 리커트 척도이며 2문항으로 구성된다. ③ 가치/신념. 영적인 가치나 신념을 측정하는 4점 리커트 척도이며 2문항으로 구성된다. ④ 용서. 자신이나 타인을 용서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4점 리커트 척도이며, 3문항으로 구성된다. ⑤ 개인적 종교활동. 종교적 활동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5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4문항은 8점 리커트 척도이며 한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이다. ⑥ 종교적/영적 대처. 영적인 활동과 신념 중 특히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처하는 것과 관련된 부가적인 문항으로 긍정적 대처 전략과 부정적 대처 전략을 동시에 측정한다. 이 하위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인 7문항으로 구성된다. ⑦ 종교적 지지. 도움이나 지지,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지역적 기반의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성도나 신자들이 제공하는 도움의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 측면도 함께 질문하였다. 이 하위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인 4문항으로 구성된다. ⑧ 공동체적 종교활동. 공적인 종교활동에 얼마나 참여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6점 리커트 척도인 2문항으로 구성된다. ⑨ 전반적인 자기-순위. 자신이 얼마나 종교적/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스스로에 대해 순위를 매기는 부가적 척도로, 4점 리커트 척도인 2문항으로 구성된다.

2.4 자료분석 방법

2.4.1 재척도화

BMMRS 문항들의 경우 각 하위척도별로 동일한 점수 범위를 갖고 있지 못하므로, 이전 연구(27)와 같이 모든 하위 척도 문항을 표준화하여 소척도 점수 범위를 동일하게 맞추었다. 즉, 총점계산과 요인분석에는 각 문항을 0에서 3점 범위에 기반하여 재척도화한 값을 사용하였다. 특히, 4점 포맷인 6개의 하위 척도-가치/신념, 용서,

종교적 대처, 종교적 지지, 헌신, 의미-는 1에서 4점 척도 범위를 0에서 3점 범위로 변환하였으며(본 점수에서 1점씩 감산), 6점 포맷인 일상적인 종교활동과 공동체적 종교활동 소척도의 경우, 원 점수에서 1점을 감산한 다음 3/5을 곱하였다. 개인적인 종교활동 소척도에 있는 8점 점수 범위를 사용하는 4개 문항의 경우, 원점수에서 1점을 감산한 다음 3/7을 곱하였다. 부가적으로, 개인적 종교활동에 있는 5점 척도의 한 문항은 원점수에서 1점을 감산한 다음 3/4를 곱하였다. 이러한 재척도화 절차를 통해 모든 문항은 0-3점 범위를 가지게 되며, 각 하위척도는 합산하여 계산하였다.

2.4.2 기술통계, 상관 및 탐색적 요인분석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기술하고, 각 하위척도와 기타 정신건강 관련 변인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IBM SPSS Statistics 18.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및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BMMRS의 한국어판의 요인구조를 탐색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IBM SPSS Statistics 18.0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비정상성에 덜 민감한 주축요인방식(principal axis factoring)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요인 간 상관을 가정하여 사각회전(direct oblimin)을 실시하였다. 요인의 수를 결정할 때 아이겐 값 1.0 이상의 기준을 사용하지 않고,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이용하여 표본크기에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도 모형의 간명성과 적합성을 평가하는 적합도 지수 RMSEA 값을 비교하여 결정하였다.

2.4.3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의 교차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BMMRS 척도만 119명에게 따로 실시한 후, 원관 척도 [14]에서 제안한 8요인 구조, Johnstone 등[28]이 제안한 6요인 구조와 한국어판 BMMRS 척도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바탕으로 도출된 요인 구조를 비교할 수 있도록 변인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모형적합도를 검증하였다. 각각의 대안적인 모형들로부터 산출된 적합도지수를 비교하여 대안모형들 중 가장 적합한 것으로 밝혀진 모형을 제시하였다. 각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χ^2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비표준부합치(Tucker-Lewis Index: TLI), 비교부합치(Comparative Fit Index, CFI)와 추정오차의 평균(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index, RMSEA)를 사용하였다.

2.4.4 타당도 분석

준거타당도는 본 척도가 측정하는 영성 및 종교적응 행동 기능과 개념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한국어판 영적 안녕 척도(SWS), 한국인을 위한 영성척도(KSS), 펜스테이트 걱정척도(PSWQ)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척도(IUS)와의 상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BMMRS의 문항 구성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해당 문항 반응에 대한 정규성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각 문항의 왜도(Skewness)가 3이하이며, 첨도(Kurtosis)가 10이하에 해당하는 바, 모든 문항이 정규성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생을 변화시킨 종교적 체험 유무, 종교적 신념으로 이득을 얻은 경험의 유무, 예배와 관련된 활동 등, 명목척도에 해당하는 문항(28, 29, 30, 36, 37, 38)의 정규성은 검증하지 않고 각 문항에 응답한 비율을 제시하였다. 종교에 기부하는 금액이나 종교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에 대한 문항인 32번과 33번 문항의 경우, 종교인 167명을 대상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제시하였다. 종교성이나 영성과 관련된 전반적 자기 순위를 측정하는 37번과 38번 문항의 경우, 서열척도로 간주하고 전체 응답자 286명을 대상으로 각 문항의 비율을 제시하였다. 요인분석에 사용될 문항은 총 32문항으로, 의미소척도의 경우에는 BMMRS 하위 차원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지 않지만 Jonestone 등[28]의 연구나 Harris 등[30]의 연구에서 다른 소척도와 함께 분석 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요인분석을 함께 실시하였다. 각 문항들의 평균은 1.43~2.80에 해당하였다. 부정적인 종교경험에 해당하는 21번, 22번, 26번 문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문항 총점 간 상관이 모두 .30을 넘어 내적 일관성이 양호하였다.

3.2 탐색적 요인분석

요인분석을 위한 자료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KMO값은 .96으로 .80이상이므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Bartlett의 유의도 검증 역시 유의한 수준이어서 요인분석하기에 양호한 자료로 판단된다, $\chi^2(496)=$

<Table 1> BMMRS Item Analysis Result

(N=286)

item	Missing data	Mean (SD)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Cronbach's Alpha if Item Deleted	Skewness	Kurtosis	
		Min	Max	Mean (SD)					
BMMRS1	1	0	3	2.30 (.82)	0.86	0.96	-1.05	0.28	
BMMRS2	1	0	3	2.20 (.87)	0.88	0.96	-0.80	-0.34	
BMMRS3	0	0	3	1.87 (.77)	0.62	0.96	-0.28	-0.42	
BMMRS4	0	0	3	2.24 (.90)	0.88	0.96	-0.92	-0.29	
BMMRS5	1	0	3	2.26 (.88)	0.85	0.96	-1.02	0.06	
BMMRS6	2	0	3	2.22 (.83)	0.77	0.96	-0.88	0.01	
BMMRS7	0	0	3	1.56 (1.03)	0.79	0.96	0.06	-1.17	
BMMRS8	1	0	3	1.50 (.79)	0.56	0.96	0.33	-0.42	
BMMRS9	1	0	3	1.43 (.92)	0.37	0.97	0.08	-0.82	
BMMRS10	1	0	3	1.47 (.91)	0.42	0.97	0.06	-0.78	
BMMRS11	1	0	3	1.81 (1.16)	0.79	0.96	-0.42	-1.29	
BMMRS12	1	0	3	2.09 (1.05)	0.83	0.96	-0.86	-0.78	
BMMRS13	0	0	3	2.17 (1.04)	0.79	0.96	-0.89	-0.77	
BMMRS14	0	0	3	2.42 (.92)	0.56	0.96	-1.37	0.44	
BMMRS15	0	0	3	2.43 (.86)	0.80	0.96	-1.37	0.52	
BMMRS16	0	0	3	2.12 (1.12)	0.82	0.96	-0.93	-0.69	
BMMRS17	0	0	3	2.25 (.95)	0.85	0.96	-1.06	0.04	
BMMRS18	0	0	3	2.35 (.90)	0.86	0.96	-1.15	0.21	
BMMRS19	0	0	3	2.23 (.96)	0.86	0.96	-1.04	-0.01	
BMMRS20	1	0	3	2.68 (.61)	0.36	0.97	-2.03	4.02	
BMMRS21	0	0	3	2.80 (.52)	0.07	0.97	-2.73	7.16	
BMMRS22	1	0	3	1.58 (1.10)	-0.17	0.97	-0.09	-1.31	
BMMRS23	0	0	3	1.81 (1.15)	0.84	0.96	-0.30	-1.42	
BMMRS24	1	0	3	2.29 (.94)	0.73	0.96	-1.08	-0.01	
BMMRS25	3	0	3	2.30 (.91)	0.75	0.96	-1.05	-0.02	
BMMRS26	2	0	3	2.64 (.59)	0.21	0.97	-1.55	1.87	
BMMRS27	5	1	3	2.78 (.48)	0.32	0.97	-2.07	3.57	
BMMRS28	nominal scale	yes (%)		26.9%					
BMMRS29	nominal scale	yes (%)		21.7%					
BMMRS30	nominal scale	yes (%)		3.8%					
BMMRS31	2	0	3	2.33 (.91)	0.88	0.96	-1.11	0.08	
BMMRS32	nominal scale	monthly contribution Mean (SD) 1654444.44 (1410107.28)						won	
BMMRS33	nominal scale	weekly activity Mean (SD) 5.49 (6.03)						hour	
BMMRS34	2	0	3	2.04 (1.20)	0.87	0.96	-0.76	-1.14	
BMMRS35	2	0	3	2.30 (1.05)	0.78	0.96	-1.24	0.01	
BMMRS36		Protestant	21.6%	Buddhist	24.5%	Catholic	9.4%	no religion	43.4%
BMMRS37	ordered scale	1	12.0%	2	26.3%	3	45.5%	4	16.2%
BMMRS38	ordered scale	1	7.2%	2	26.3%	3	30.5%	4	35.9%
BMMRS39	2	0	3	2.09 (1.00)	0.74	0.96	-0.71	-0.74	
BMMRS40	1	0	3	1.67 (1.00)	0.60	0.96	-0.13	-1.09	

7926.65, $p=.000$. 주축요인방식을 적용해 요인을 추출하고, 요인간 상관을 가정하여 사각회전 방식으로 요인을 회전하였다. 요인 추출을 위한 기준으로는 Floyd와 Widaman[37]가 제안한 특정 문항의 요인부하계수가 .30 이상이고 다른 요인에 대한 요인부하계수의 차이가 적어도 .10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을 사용하였다. 요인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최대우도법을 사용한 결과, 6

개의 하위요인이 예상되었으며, 요인의 수를 5개, 6개, 7개로 지정하여 RMSEA를 계산했을 때, 각각 0.064, 0.062, 0.070이 계산되는 바, 6개의 요인이 적합한 것으로 가정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Table 2). 요인 1의 고유치는 16.697로 전체 변량의 52.14%를, 요인 2의 고유치는 1.34로 전체변량의 4.20%를, 요인 3의 고유치는 1.00으로 전체 변량의 3.10%를, 요인 4의 고유치는 0.82로 전

<Table 2> BMMR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N=286)

	original BMMRS scale	Johnstone et al. 2009	factor					
			1	2	3	4	5	6
Positive Spiritual Experiences								
BMMRS_39	Meaning	1	.800	.066	-.057	.066	.060	-.116
BMMRS_7	Value/Beliefs	1	.794	.040	.049	-.033	-.044	-.046
BMMRS_6	Daily Spiritual Experiences	1	.789	-.063	-.010	-.083	.048	.115
BMMRS_4	Daily Spiritual Experiences	1	.768	.066	.059	-.151	-.082	-.098
BMMRS_1	Daily Spiritual Experiences	1	.751	.029	.042	-.180	-.077	-.031
BMMRS_11	Forgiveness	2	.749	-.108	.113	.050	-.101	-.108
BMMRS_5	Daily Spiritual Experiences	1	.729	.011	.026	-.087	-.022	-.154
BMMRS_23	Religious & Spiritual Coping	1	.716	.055	.023	-.137	-.017	-.115
BMMRS_40	Meaning	1	.679	-.199	-.082	.129	.092	.024
BMMRS_2	Daily Spiritual Experiences	1	.670	-.016	.002	-.235	-.075	-.099
BMMRS_17	Religious & Spiritual Coping	1	.634	-.021	.078	-.165	-.125	-.165
BMMRS_18	Religious & Spiritual Coping	1	.631	-.020	.070	-.134	-.126	-.241
BMMRS_19	Religious & Spiritual Coping	1	.622	.018	.072	-.121	-.056	-.262
BMMRS_8	Value/Beliefs	1	.609	-.017	.072	-.008	.092	.118
BMMRS_31	Commitment	2	.517	-.012	-.001	-.229	.062	-.166
BMMRS_3	Daily Spiritual Experiences	1	.511	-.216	-.040	-.147	.120	.128
Forgiveness								
BMMRS_10	Forgiveness	2	-.049	-.797	.027	-.136	-.058	-.081
BMMRS_9	Forgiveness	2	.077	-.641	.020	-.027	-.074	-.041
Negative Spiritual Experiences								
BMMRS_21	Religious & Spiritual Coping	5	-.119	-.018	.737	.053	.045	.028
BMMRS_20	Religious & Spiritual Coping	5	.175	.002	.640	-.022	-.017	.016
Religious Practices (Private/Organizational)								
BMMRS_14	Private Religious Practices	2	.055	-.006	-.019	-.766	.023	.164
BMMRS_15	Private Religious Practices	3	.091	-.059	.096	-.718	.058	-.096
BMMRS_13	Private Religious Practices	3	.075	-.167	.073	-.717	.047	-.051
BMMRS_35	Organizational Religiousness	3	.065	-.056	-.007	-.700	.109	-.167
BMMRS_12	Private Religious Practices	1	.216	-.114	.042	-.525	.081	-.203
BMMRS_34	Organizational Religiousness	3	.293	-.057	.036	-.517	.054	-.197
BMMRS_16	Private Religious Practices	3	.204	-.171	.045	-.492	.080	-.204
Negative Religious Support								
BMMRS_26	Religious Support	6	-.052	.074	.074	-.123	.582	-.099
BMMRS_27	Religious Support	6	.088	.153	.007	-.146	.532	-.129
BMMRS_22	Religious & Spiritual Coping	2	-.025	-.137	.013	.203	.304	.152
Positive Religious Support								
BMMRS_25	Religious Support	4	.135	-.172	.039	-.068	.170	-.721
BMMRS_24	Religious Support	4	.277	-.121	-.007	.039	.134	-.681
Eigenvalue			16.69	1.34	1.00	0.82	0.76	0.60
Cumulative % : 66.24			52.14	4.20	3.10	2.56	2.38	1.87
Cronbach's alpha : .965			.967	.768	.645	.943	.639	.929
4 weeks test-retest reliability : .830			.820	.722	.758	.848	.852	.879
Factor Mean (SD)			32.56 (12.35)	2.90 (1.65)	5.48 (.97)	15.55 (6.30)	6.99 (1.47)	4.59 (1.79)
Kaiser-Meyer-Olkin = .959, Bartlett's Sphericity Test $\chi^2=7926.65$, $df=496$, ($p=.000$)								

체변량의 2.56%를, 요인 5의 고유치는 0.76으로 전체 변량의 2.37%를, 요인 6의 고유치는 0.60으로 전체 변량의 1.87%를 설명하여, 6요인의 총 설명량은 66.24%였다. 모든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30이상이었으며, 두 개 이상의 요인에서 .30이상인 문항은 관찰되지 않았다.

3.3 신뢰도 분석

BMMRS의 내적 일치도는 .97이었으며, 요인 1~6의 내적 일치도는 .64~.97로, 각 하위 요인들은 안정적인 개념임을 확인하였다. 4주 간격으로 측정된 검사-재검사 신뢰도의 경우, 각 하위 척도별로 .72~.88에 해당하는

바, 비교적 안정적으로 해당 하위 요인들을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Table 2).

3.4 요인간 상관 분석

6요인 간에는 대체로 중등도 미만 수준의 상관을 보여 별개의 요인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였다(Table 3). 다만 긍정적인 영적경험과 종교활동 사이에는 매우 강한 상관이 관찰되는데($r=.84$), Johnstone 등[23]의 연구에서 긍정적인 영적경험과 종교활동 두 요인 간 상관이 .68에 해당하는 등, 두 요인의 관련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긍정적인 영적경험이 높아질수록 종교활동에 더욱 매진하게 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Table 3> Pearson correlations among BMMRS sub-factors (N=289)

Factor Scale	1	2	3	4	5
Spiritual Experiences					
1. Positive Spiritual Experiences					
2. Negative Spiritual Experiences	.24***				
3. Forgiveness	.43***	.13*			
4. Religious Practices	.84**	.26***	.37***		
Religious Support					
5. Negative Religious Support	.02	.10	.02	.07	
6. Positive Religious Support	.73***	.20**	.31***	.70***	.10

note. * $p < .05$. ** $p < .01$. *** $p < .001$.

3.4 확인적 요인분석

새롭게 모집된 119명을 대상으로 원칙도가 제안한 원 관 척도[14]의 8요인 구조, Johnstone 등[28]의 6요인 구조 이외에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한국형 6요인 구조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Table 4).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제안된 한국어판 6요인모형의 요인 구조의 적합도가 $\chi^2(449)=952.028$, $p=.001$, RMSEA=.034 (.031~.039)로 가장 좋았다. 기존의 8요인 모형이나 Johnstone 등[28]의 6요인 모형과 비교 분석한 결과, 두 모형의 자유도 차이(13)에서 χ^2 차이(10.196)가 유의미하지 않았고, χ^2/df 비율의 경우, 275사이는 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Table 4> Goodness-of-Fit Indices of Models of the BMMRS (N=119)

Model	χ^2 (p -value)	df	χ^2/df	RMSEA (90% CI)	TLI	CFI
1. 8 factor Model (Fetzer Institute 1999)	962.224 (.000)	436	2.207	.036 (.033-.039)	.853	.878
2. 6 factor Model (Johnstone, 2009)	1002.676 (.000)	449	2.233	.036 (.033-.039)	.849	.872
3. 6 factor Model (Korean Version)	952.028 (.000)	449	2.120	.034 (.031-.037)	.900	.884

note. *** $p < .001$.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TLI: Tucker Lewis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Table 5> Pearson correlations between BMMRS sub-factor and criterion related scales

	SWS_RWB	SWS_EWB	KSS transce ndence	KSS meaning	KSS compa ssion	KSS inner resource	KSS self-consciou sness	KSS connection	IUS	PSWQ
Spiritual Experiences										
1. Positive Spiritual Experiences	-.86***	-.31***	-.72***	-.37***	-.29***	-.20***	-.33***	-.28***	.06	.13*
2. Negative Spiritual Experiences	-.19**	.03	-.22***	.08	-.08	.10	-.05	.02	-.10	-.16**
3. Forgiveness	-.37***	-.27***	-.37***	-.26***	-.21***	-.26***	-.26***	-.23***	.14*	.19**
4. Religious Practices	-.74***	-.20***	-.66***	-.29***	-.25***	-.13	-.23***	-.23***	.07	.17**
Religious Support										
5. Negative Religious Support	.07	-.03	-.05	-.08	.00	-.01	-.12	-.03	.01	.05
6. Positive Religious Support	-.63***	-.22***	-.54***	-.28***	-.31***	-.15*	-.29***	-.24***	.07	.11

note. * $p < .05$. ** $p < .01$. *** $p < .001$.

SWS_RWB: Spiritual Well-Being Scale-Religious Well-Being, SWS_EWB: Spiritual Well-Being Scale-Existential Well-Being, KSS: Korean Spirituality Scale, PSWQ: 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IUS: Intolerance of uncertainty Scale

바(Kelloway, 1998), 8요인과 6요인 모두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전반적인 부합도에 있어서 6요인 모형이 8요인 모형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보다 간명한 6요인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다. 한국어판 6요인 모형의 경우 RMSEA가 가장 0에 가깝고, TLI와 CFI값 또한 가장 1.0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요인 해석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6요인 모형을 보다 타당한 모형이라 판단하고, 본 자료는 6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다고 결론 내렸다.

3.5 준거 및 변별 타당도

준거 및 변별 타당도 분석을 위하여 한국어판 BMMRS의 점수와 다른 영성척도 및 정신건강 관련 척도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Table 5). BMMRS의 긍정적 종교경험 및 종교활동, 용서, 긍정적인 종교적 지지와 관련된 하위요인은 영적 안녕 척도와 한국인을 위한 영성척도의 하위요인들과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부정적인 종교 지지와는 상관이 관찰되지 않았다. 특히 긍정적인 신과의 관계를 측정하는 종교적 안녕이나 우주와 하나로 연결되고 자신의 내적 힘이 더 높은 힘에 대한 믿음과 관련된다는 초월성이 긍정적인 영적경험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r=-.86$, $r=.72$). 그러나 부정적인 영적경험의 경우에도 종교적 안녕이나 초월과 동일한 방향의 상관이 관찰되었는데($r=-.19$, $r=-.22$), 이는 부족한 영성 때문에 신이 나를 벌하고 있거나 신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닌지 고민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인 영성이나 종교에 대한 신념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내 삶을 통제하고 내 안에 무한한 능력이 있음을 믿고 있는 것과 같은 내적 자원(KS_내적자원)의 경우, 신과의 관련성이나 용서와 같은 영성 변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만($r=-.20$, $r=-.26$), 부정적인 종교경험과는 뚜렷한 상관이 관찰되지 않았다($r=.10$, $p=.11$).

긍정적인 영적경험이 높을수록 걱정 수준이 낮았으며($r=.13$, $p=.040$), 부정적인 영적경험이 높을수록 걱정 수준이 높았다($r=-.16$, $p=.002$). 나 자신이나 타인을 더 많이 용서할수록, 걱정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높았다($r=.19$, $p=.002$; $r=.14$, $p=.019$). 개인적/공동체적 종교활동의 빈도가 높을수록 일상적인 걱정 수준이 더 낮았다($r=.17$, $p=.006$). 긍정적/부정적 종교적 지지의 경우에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척도와 특별한

상관이 관찰되지 않았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적으로 영성과 종교성을 측정할 수 있는 BMMRS를 한국형으로 변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고, 영성과 정신건강의 관련성을 간략하게 개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그 결과 각각의 소척도들은 만족할만한 내적 일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나타내었으며, 비교적 구분되는 하위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판 척도[14]가 제안한 8요인보다는 후속적으로 연구된 Jonestone 등[28]이나 Johnstone과 Yoon[38]의 6요인 구조((1) 긍정적인 영적경험, (2) 부정적인 영적경험, (3) 용서, (4) 종교활동 (5) 긍정적인 종교적 지지, (6) 부정적인 종교적 지지)가 한국인의 영성과 종교성을 측정하는데 보다 적합한 구도임을 확인하였다. 각 소척도가 긍정적인 경험이나 부정적인 내용을 개별적인 측정하기 때문에, 종교성/영성 총점으로 계산하기 보다는 재척도화해서 소척도별로 점수를 합산하는 것이 권고된다.

한국어판 척도의 요인 1인 “긍정적인 영적경험” 소척도의 경우, Johnstone과 Yoon[38]의 (1-1) 긍정적인 영적경험에 해당하는 16문항으로, 긍정적인 신과의 관계 및 미래지향적 신념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된다. 원판 BMMRS에서 가치/신념과 일상적인 영적경험, 긍정적인 종교적 대처, 의미 소척도가 포함된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종교적/영적 대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어판 척도의 요인 2인 “용서” 소척도의 경우, Johnstone과 Yoon[38]의 (1-3) 용서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구성된다. 주로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거나(9번) 주변 사람을 용서하는(10번) 것과 같이 용서의 주체가 나 자신인 문항이다. 다만 11번 문항 ‘신이 나를 용서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의 경우, Johnstone 등[28]의 분석이나 원판 척도[14]에서 용서 소척도에 속했던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요인 1에 속하였는데, 이는 용서의 주체가 신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적 경험과 보다 유사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헌신”과 관련된 31번 문항의 경우도 Johnstone 등[28]의 분석에서는 용서 소척도에 속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요인 1에 속했는데, 종교에 헌신하는 내용의 문항이 긍정적인 영적 경험과 유사하게 분류된 결과로 보인다.

한국어판 척도의 요인 4인 “종교활동(개인/공동체)”의 경우, Johnstone과 Yoon[33]의 (2) 종교활동에 해당하는 문항이다. Johnstone과 Yoon[33]의 요인분석에서는 12번 문항이 긍정적인 영적경험 소척도에, 14번 문항이 용서 소척도에 분류되었으나, Johnstone과 Yoon[38]의 연구에서는 이 두 문항을 모두 종교활동으로 분류하여 채점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바, 한국 표본에서 비교적 적절하게 문항이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판 척도의 요인 3인 “부정적인 영적경험”나 요인 5인 “부정적인 종교적 지지”, 요인 6인 “긍정적인 종교적 지지”의 경우, 선행 연구와 동일한 문항으로 분류되었다. 다만 요인 5에 포함된 22번 문항의 경우 Johnstone 등[28]의 요인 분류에서는 종교적/영적 대처에 해당하였는데, 다른 요인과의 부하량 차이가 .066밖에 나지 않아 해당 소척도 계산에서 제거될 수 있음이 시사된 바 있다. 한국 표본에서도 요인 5뿐만 아니라 요인 4의 요인부하량이 .203으로, 두 요인에 대한 요인부하계수의 차이가 .101인 것으로 나타나 문항 해석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BMMRS 척도의 한국어판 타당화 과정에서, 다소 이질적인 것은 긍정적인 종교적 지지 소척도가 긍정적인 영적경험, 종교활동 소척도와도 매우 높은 상관을 보인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공동체에서 경험하는 긍정적인 종교적 지지와 개인이 경험하는 긍정적인 영적경험, 개인이 직접 행동하는 종교활동이 구분되는 것으로 보이나, 한국의 종교활동은 신앙 생활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영적경험이나 긍정적인 종교 지지가 서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이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기타 준거 타당도 분석에 따르면, 영성은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의 감소와 긍정적 정서 형성 및 정서조절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34,39,40,41], 특히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서 영성의 수준이 높은 집단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과 긍정적 정서의 형성 및 조절능력이 영성이 낮은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42,43].

또한 다양한 정신건강의 영역 중, 영성과 보다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개념은 걱정과 불안이다[44]. 인간의 걱정이나 불안과 관련된 종교적인 구성개념은 신에 대한 신뢰/불신에 기반 한 영성이라 할 수 있다[44]. 신은 모든 세속적인 일들을 알고 있다(전지omniscience), 신은

다른 힘과 능력보다 뛰어나다(전능omnipotence), 신은 자비롭고 관대하다(omnibenevolence)와 같은 영성의 개념은 미래에 대한 안정감과 높은 수준의 정신건강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된다[45]. 이러한 선행 연구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영성이나 종교성이 불안이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통해 영성과 종교성을 변별하고자 시도하였다. 실제로 긍정적인 영적경험과 부정적인 영적경험을 변별하는데 있어서, 걱정 수준이 매우 뚜렷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단순히 긍정적, 부정적인 영적경험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 대한 용서의 개념으로 영성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낮은 불안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을 인내할 수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Rosmarin 등[44]의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신에 대한 신뢰는 긍정적인 영적 정서들, 종교적인 대처, 초월성에 대한 연결감을 고취하며, 따라서 불확실한 일상생활들에 대한 인내력을 증가시키는 반면, 신에 대한 불신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나 의심, 갈등을 촉진시킴으로써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을 약화시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경우 BMMRS의 타당화 과정에서 영성과 정신건강의 상관관계만 밝혔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특정 시점의 영성수준을 측정 한 후, 일정 시간 이후에 경험하는 긍정적, 부정적 정서 경험과 영성 수준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종단적으로 파악한다면, 개인의 정신건강에 영성이 미치는 영향을 보여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BMMRS 척도를 사용한 대상을 좀더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Cotton, McGrady와 Rosenthal[45]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느낀다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는 것과 같은 영적경험이 사춘기의 위기 대처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거나, 역할 모형으로서 목사나 종교 지도자들의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면 다차원적인 종교/영성을 파악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BMMRS에 대한 하위 유형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변별 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어판으로 개발된 영성적도나 종교적 안녕감 척도, 펜스테이트 걱정 척도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척도와 상관을 통해 영성과 종교성을 구분하는데 있어

서 걱정이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부정적인 종교적 지지를 변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구성 개념은 본 논문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부정적 종교적 지지'의 하위요인의 경우, 다른 BMMRS 하위척도와와의 상관성이 높지 않으며, 준거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포함된 기타 정신건강 척도와도 뚜렷한 상관이 발견되지 않아, 실제 해당 소척도가 의미 있게 종교성이나 영성을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Paragament[12]이나 Peterson과 Roy[48]가 지적한 바와 같이 종교활동 과정에서 사람들은 건설적 경로 뿐만 아니라 파괴적 경로로 영성을 추구하여 종교가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종교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종교 대응을 하는 경우, 높은 우울 수준을 보고한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49], 해당 소척도를 삭제하고 다차원적인 종교성과 영성을 측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간주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부정적 종교적 지지의 구성 개념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탐색을 통해 세분화된 변별 타당도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일반 신도들을 대상으로 BMMRS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탐색했다는 의의가 있으나, 적은 표본수로 인하여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임상 집단이나 직업적인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확증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영성 및 종교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모형을 제시하고 검증하는 단계가 추가된다면 구성 타당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종교성과 영성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타당화 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성이나 영성의 변인이 정신건강과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 탐색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틀을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전통적인 정신건강모델의 경우 질병을 신체-정신-사회 모델(Bio-Psycho-Social model)로 나누고 있지만, 종교행위, 영적인 행위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며,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영성이나 종교 행위가 뇌의 기능성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다양한 연구들을 근거했을 때, 정신건강이나 심리치료의 영역에서 신체(생물)-정신-사회-영적 모델(Bio-Psycho-Socio-Spiritual model)로의 통합적, 융합

적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46,47]. 향후 본 연구를 바탕으로 종교적인 신념이나 영적경험이 포함된 정신건강 모형이 개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CKNOWLEDGMENTS

본 논문은 2012년도 계명대학교 비사(신진)연구기금으로 이루어졌으며, 한국심리학회 2015년 연차학술대회에서 포스터 게재된 「다차원적 종교성/영성척도 단축형 한국어판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기초로 하였음.

REFERENCES

- [1] K. H. Kim, "The considerations for application of spirituality in the mental health field",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Vol. 32, No. 1, pp. 213-230, 2013.
- [2] K. H. Kim, M. Ru, J. S. Kim, "Relationship between intrinsic/ex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and subjective/ spirituality well-being", *Korean Clinical and Health Psychology Association Spring Congress Program and Abstract*, May 1-2. Dea-Jeon: Convention Center. pp. 104-106. 2008.
- [3] K. H. Suh, K. G. Chon, "Spiritual well-being, life stress, and coping",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9, No. 2, pp. 333-350, 2004.
- [4] K. H. Suh, S. J. Chung, J. H. Koo, "Spiritual Well-Being, Life Stress, Depression, and Self-Esteem Among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7, No. 3, pp. 1077-1095, 2005.
- [5] S. Mohr, N. Perroud, C. Gillieron, P. Brandt, I. Rieben, B. Laurence, P. Huguelet, "Spirituality and religiousness as predictive factors of outcome in schizophrenia and schizo-affective disorders", *Psychiatry Research*, Vol. 186, No. 2, pp. 177-182, 2011.
- [6] S. Rajakumar, C. Jillings, M. Osborne, P. Tognazzi, "Spirituality and depression: the role of spirituality in the process of recovering from depression",

- Spirituality and Health International, Vol. 9, No. 2, pp. 90-100, 2008.
- [7] J. Mattis, "Religion and spirituality in the meaning making and coping experiences of African American woman: A qualitative analysi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Vol. 26, No. 4, pp. 308-320, 2002.
- [8] S. M. Kwon. "Positive Psychology", Hakjisa, pp. 30-36, 2008.
- [9] J. Firman, J. Vargiu, "Personal and transpersonal growth: The perspective of psychosynthesis". In: Boorstein S. editors. *Transpersonal Psychotherapy*, Albany: SUNY Press, pp. 117-142, 1996.
- [10] D. O. Moberg, "Subjective measures of spiritual well-being",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Vol. 25, pp. 351-364, 1984.
- [11] R. I. Gorsuch, "Measurement: The boon and bane of investigating religion", *American Psychologist*, Vol. 39, No. 3, pp. 228-236, 1984.
- [12] K. I. Pargament, "Religious/spiritual coping, Fetzer Institute, National Institute on Aging Working Group: Multidimensional measurement of Religiousness / Spirituality for use in Health Research. A report of a national working group supported by Fetzer Institute in Collaboration with the National Institute on Aging", Kalamazoo: Fetzer Institute, pp. 43-56, 1999.
- [13] D.A. MacDonald, "Studying spirituality scientifically: Reflections, considerations, recommendations", *Journal of Management, Spirituality & Religion*, Vol. 8, No. 3, pp. 195-210, 2011.
- [14] Fetzer Institute/National Institute On Aging Work group, "Multidimensional measurement of religiousness/spirituality for use in health research", Kalamazoo, MI: Fetzer Institute, pp. 1-10, 1999.
- [15] R. F. Paloutzian, C. Ellison, "Spiritual well-being scale", New York: Guilford Press, pp. 1-10, 1982.
- [16] G. W. Allport, J. M. Ross, Personal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 No. 4, pp. 432-443, 1967.
- [17] K. Y. Lee, C. H. Kim, D. W. Kim, Development of the Spirituality Scale,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5, No. 4, pp. 711-728, 2003.
- [18] C. E. Westgate, Spirituality welln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Vol. 75, No. 1, pp. 26-35, 1996.
- [19] J. K. Kim, *Gestalt Psychotherapy*, Seoul: Hakjisa, 1995.
- [20] K. S. Kendler, X. Q. Liu, C. O. Gardner, M. E. McCullough, D Larson, C. A. Prescott, Dimensions of religiosity and their relationship to lifetime psychiatric and substance use disorder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 160, No. 3, pp. 496-503, 2003.
- [21] D. P. Yoon, E. K. O. Lee, Religiousness/spiritu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rural elderly whites, African Americans, and Native Americans,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Vol. 10, No. 1, pp. 191-211, 2004.
- [22] L. G. Underwood, J. A. Teresi, The daily spiritual experience scale: Development, theoretical description, reliability,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preliminary construct validity using health-related data, *Annals of Behavioral Medicine*, 24, 1, pp. 22-33, 2002.
- [23] K. I. Pargament, H. G. Koenig, L. M. Perez, The many methods of religious coping: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RCOP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56, No. 4, pp. 519-543, 2000.
- [24] E. I. Idler, M. A. Musick, C. G. Ellison, L. K. George, N. Krause, M. G. Ory, D. R. Williams, Measuring multiple dimensions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for health research conceptual background and findings from the 1998 General Social Survey, *Research on Aging*, Vol. 25, No. 4, pp. 327-365, 2003.
- [25] J. A. Neff, Exploring the dimensionality of "religiosity" and "spirituality" in the Fetzer multidimensional measure,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Vol. 45, No. 3, pp. 449-459, 2006.

- [26] C. Stewart, G. F. Koeske, A Preliminary Construct Validation of the Multidimensional Measurement of Religiousness/Spirituality Instrument: A Study of Southern USA Samples, *the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Vol. 16, No. 3, pp. 181-196, 2006.
- [27] R. I. Piedmont, A. T. Mapa, J. E. Williams. A factor analysis of the Fetzer/NIA Brief Multidimensional Measure of Religiousness/Spirituality(MMRS), *Research in the Social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Vol. 17, No. 1, pp. 177-196, 2006.
- [28] B. Johnstone, D. P. Yoon, K. I. Franklin, I. Schopp, J. Hinkebein, Reconceptualizing the factor structure of the brief multidimensional measure of religiousness/spirituality,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Vol. 48, No. 2, pp. 146-163, 2009.
- [29] B. Johnstone B, D. P. Yoon, J. Rupright, S. Reid-Arndt, Relationships among spiritual beliefs, religious practises, congregational support and health for individuals with traumatic brain injury, *Brain Injury*, Vol. 23, No. 5, pp. 411-419, 2009.
- [30] S. K. Harris, L. R. Sherritt, D. W. Holder, J. Kulig, L. A. Shrier, J. R. Knight,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brief multidimensional measure of religiousness/spirituality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Vol. 47, No. 4, pp. 438-457, 2008.
- [31] Gallup Korea. *The religion of Koreans 1984-2014*, p. 3, Seoul: Gallup Korea, 2015.
- [32] T. J. Meyer, M. I. Miller, R. I. Metzger, T. D. Borkovec,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Vol. 28, No. 6, pp. 487-495, 1990.
- [33] J. W. Kim, B. B. Min, The relationships between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problem solving in worry, *Korean Psychology Association Annual Congress Program and Abstracts*, August 20-22.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p. 83-92. 1998.
- [34] K. Buhr, M. J. Dugas, The intolerance of uncertainty scal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English versio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Vol. 40, No. 8, pp. 931-945, 2002.
- [35] H. K. Choi, The dysfunctional effects of chronic worry and controllable-uncontrollable treats on problem-solving,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22, No. 2, pp. 287-302, 2003.
- [36] S. Cheung, J. Lee, H. Park, J. Kim, D. Bai, K. Lee, J. Sagong, C. Song, J. Bai. A Study on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spiritual well-being scale, *J Korean Neuropsychiatry Association*, Vol. 40, No. 2, pp. 230-242, 2001.
- [37] F. J. Floyd, K. F. Widaman, Factor analysis in the development and refinement of clinical assessment instruments, *Psychological Assessment*, Vol. 7, No. 4, pp. 286-295, 1995.
- [38] B. Johnstone, D. P. Yoon, Relationships between the Brief Multidimensional Measure of Religiousness / Spirituality and health outcomes for a heterogeneous rehabilitation population, *Rehabilitation Psychology*, Vol. 54, No. 5, pp. 422-431, 2009.
- [39] N. Krause, Religion, aging, and health: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Vol. 52, No. 6, pp. 291-293, 1997.
- [40] J. Levin, Religious research in gerontology, 1980-1994: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Religious Gerontology*, Vol. 10, No. 3, pp. 3-31, 1998.
- [41] K. I. Pargament, *Spiritually integrated psychotherapy: Understanding and addressing the sacred*, pp. 3-28, New York: Guilford Press, 2007.
- [42] K. I. Maton, E. A. Wells, Religion as a community resource for well-being: Prevention, healing, and empowerment pathways,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51, No. 2, pp. 177-193, 1995.
- [43] H. C. Stevenson, Managing anger: Protective, or adaptive racial socialization identity profiles and African American manhood development, *Journal of Prevention & Intervention in the Community*, Vol. 16, No.1-2, pp. 35-61, 1997.
- [44] D. H. Rosmarin, S. Pirutinsky, R. P. Auerbach, T.

Björgvinsson, J. Bigda-Peyton, G. Andersson, E. J. Krumrei, Incorporating spiritual beliefs into a cognitive model of worr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67, No. 7, pp. 691-700, 2011.

[45] S. Cotton, M. E. McGrady, S. I. Rosenthal, Measurement of religiosity/spirituality in adolescent health outcomes research: Trends and recommendations,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Vol. 49, No. 4, pp. 414-444, 2010.

[46] D. G. Blazer. Spirituality and Depression. In *Religious and Spiritual Issues in Psychiatric Diagnosis*. pp. 1-22. Arlington, VA: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Inc. 2011.

[47] S. C. Cho, The Concept of Consilience in the Field of Psychiatry,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Vol. 51, No. 6, pp. 349-358, 2012.

[48] L. Peterson, A. Roy, Religiosity, anxiety, and meaning and purpose: Religious consequences for psychological well-being, *Religion, Personality, and Mental Health*, Vol. 27, No. 1, pp. 49-62, 1985.

[49] H. B. Bosworth, K. S. Park, D. R. McQuoid, J. C. Hays, D. C. Steffens, The impact of religious practice and religious coping on geriatric depres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Vol. 18, No. 10, pp. 905-914, 2003.

윤혜영(Hyae-Young Yoon)

[정회원]



- 2000년 8월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심리학석사)
 - 2011년 2월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심리학박사)
 - 2011년 3월 ~ 2011년 8월 : 고려대학교 부부상담연구소 연구교수
 - 2011년 9월 ~ 현재 :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정신건강, 인지행동치료, 정서정보처리, 영성

저자소개

김근향(Keun-Hyang Kim)

[정회원]



- 1997년 8월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문학석사)
 - 2011년 2월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심리학박사)
 - 2003년 2월 ~ 2015년 2월 : CHA의과학대 분당차병원 임상심리전문가
 - 2015년 3월 ~ 현재 :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긍정심리학 및 긍정심리치료, 여성 우울증, 불안장애

부 록(BMMRS 한국어판)

다음은 종교성/영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 1. 매우 동의함 2. 동의함
- 3. 동의하지 않음 4. 매우 동의하지 않음

일상적인 영적 경험

아래의 문항들은 당신이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체험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정도를 표시하십시오.

1. 나는 신(God)의 존재를 느낀다.
 - 1. 하루에 여러 번 2. 매일
 - 3. 자주 4. 때때로
 - 5. 아주 가끔 6. 거의 아니다.
2. 나는 종교 안에서 힘과 위안을 얻는다.
 - 1. 하루에 여러 번 2. 매일
 - 3. 자주 4. 때때로
 - 5. 아주 가끔 6. 거의 아니다.
3. 나는 깊은 내적 평안과 조화로움을 느낀다.
 - 1. 하루에 여러 번 2. 매일
 - 3. 자주 4. 때때로
 - 5. 아주 가끔 6. 거의 아니다.
4. 나는 신과 더 가까워지거나 하나되기를 바란다.
 - 1. 하루에 여러 번 2. 매일
 - 3. 자주 4. 때때로
 - 5. 아주 가끔 6. 거의 아니다
5. 나는 나에게 대한 신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또는 타인을 통해서 느낀다.
 - 1. 하루에 여러 번 2. 매일
 - 3. 자주 4. 때때로
 - 5. 아주 가끔 6. 거의 아니다
6. 나는 창조의 아름다움에 영적으로 감화된다.
 - 1. 하루에 여러 번 2. 매일
 - 3. 자주 4. 때때로
 - 5. 아주 가끔 6. 거의 아니다

가치/신념

7. 나는 나를 보살피는 신의 존재를 믿는다.
 - 1. 매우 동의함 2. 동의함
 - 3. 동의하지 않음 4. 매우 동의하지 않음
8. 나는 세상의 아픔과 괴로움을 줄이는데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용서

나의 종교적, 영적 신념 때문에

9. 내가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용서했다.
 - 1. 항상 혹은 거의 대부분 2. 종종
 - 3. 아주 가끔 4. 전혀
10. 나는 내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했다.
 - 1. 항상 혹은 거의 대부분 2. 종종
 - 3. 아주 가끔 4. 전혀
11. 신이 나를 용서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 1. 항상 혹은 거의 대부분 2. 종종
 - 3. 아주 가끔 4. 전혀

개인적 종교 활동

12. 교회 또는 절 이외의 곳에서 얼마나 자주 혼자 기도를 하나요?
 - 1. 하루에 한번 이상 2. 하루에 한번
 - 3. 일주일 동안 몇 번 4. 일주일에 한 번
 - 5. 한 달에 몇 번 6. 한 달에 한 번
 - 7. 한 달에 한 번 이하 8. 전혀
13. 당신의 종교적, 영적인 관례 안에서, 얼마나 자주 명상을 하나요?
 - 1. 하루에 한번 이상 2. 하루에 한번
 - 3. 일주일 동안 몇 번 4. 일주일에 한 번
 - 5. 한 달에 몇 번 6. 한 달에 한 번
 - 7. 한 달에 한 번 이하 8. 전혀
14. TV 또는 라디오의 종교 프로그램을 얼마나 자주 시청 하나요?
 - 1. 하루에 한번 이상 2. 하루에 한번
 - 3. 일주일 동안 몇 번 4. 일주일에 한 번
 - 5. 한 달에 몇 번 6. 한 달에 한 번
 - 7. 한 달에 한 번 이하 8. 전혀
15. 성경이나 신앙서적들을 얼마나 자주 읽나요?
 - 1. 하루에 한번 이상 2. 하루에 한번
 - 3. 일주일 동안 몇 번 4. 일주일에 한 번
 - 5. 한 달에 몇 번 6. 한 달에 한 번
 - 7. 한 달에 한 번 이하 8. 전혀

16. 집에서의 식사 전후에 얼마나 자주 기도를 하거나 감사를 표하나요?

- 1. 모든 식사 때 마다 2. 하루에 한 번
- 3. 적어도 한 주에 한 번
- 4. 특별한 경우에 한번 씩 5. 전혀

종교적, 영적 대처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문제를 다루거나 그런 문제를 이해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생각해 보라. 아래의 질문에서 당신이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정도를 평정하십시오.

17. 나는 내 삶이 어떻게 더 큰 영적인 힘의 일부인지에 대해 생각한다.

- 1. 매우 그러함 2. 대체로 그러함
- 3. 약간 그러함 4. 전혀 그렇지 않음

18. 나는 신과 동반자로서 함께 일한다.

- 1. 매우 그러함 2. 대체로 그러함
- 3. 약간 그러함 4. 전혀 그렇지 않음

19. 나는 능력, 지지, 인도를 받기 위해 신에게 의지한다.

- 1. 매우 그러함 2. 대체로 그러함
- 3. 약간 그러함 4. 전혀 그렇지 않음

20. 신이 나의 죄와 부족한 영성 때문에 나를 벌하고 있다고 느낀다.

- 1. 매우 그러함 2. 대체로 그러함
- 3. 약간 그러함 4. 전혀 그렇지 않음

21. 신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닌지에 대해 생각한다.

- 1. 매우 그러함 2. 대체로 그러함
- 3. 약간 그러함 4. 전혀 그렇지 않음

22. 나는 신에게 의지하지 않은 채, 상황을 이해하거나 내가 해야 할 일을 결정하려고 한다.

- 1. 매우 그러함 2. 대체로 그러함
- 3. 약간 그러함 4. 전혀 그렇지 않음

23. 당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종교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까?

- 1. 매우 개입됨
- 2. 약간 개입됨
- 3. 많이 개입되지 않음
- 4. 전혀 개입되지 않음

종교적 지지

이 질문들은, 앞으로 당신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당신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당신을 도와줄 것인지 알아 보려고 만들었습니다.

24. 당신이 아픈 경우, 성도 또는 신자들이 얼마나 당신을 도와주나요?

- 1. 매우 그러함 2. 대체로 그러함
- 3. 약간 그러함 4. 전혀 그렇지 않음

25. 당신에게 문제가 생겼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신도들이 어느 정도의 위안을 주나요?

- 1. 매우 그러함 2. 대체로 그러함
- 3. 약간 그러함 4. 전혀 그렇지 않음

때때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26. 신도들이 당신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나요?

- 1. 매우 자주 2. 어느정도 자주
- 3. 이따금씩 4. 전혀 그렇지 않음

27. 당신이나 당신이 한 행동들에 대해서 신도들은 얼마나 자주 비판적인가요?

- 1. 매우 자주 2. 어느정도 자주
- 3. 이따금씩 4. 전혀 그렇지 않음

종교적/영적 이력

28.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킨 종교적, 영적인 체험을 한 적이 있나요?

예 _____ 아니오 _____

만약 그렇다면, 그 경험을 했을 때 몇 살이었습니까?

29. 당신의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눈에 띄는 이득을 얻은 적이 있나요?

예 _____ 아니오 _____

만약 그렇다면, 그 경험을 했을 때 몇 살이었습니까?

30. 당신의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큰 손실을 본 적이 있나요?

예 _____ 아니오 _____

만약 그렇다면, 그 경험을 했을 때 몇 살이었습니까?

현신

31. 나는 내 삶의 여러 부분에 종교적 신념을 적용하기 위해 매우 애쓴다.
1. 매우 그러함 2. 대체로 그러함
3. 약간 그러함 4. 전혀 그렇지 않음
32. 지난 해 동안, 당신의 가정이 종교적인 이유로 또는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월평균 얼마였나요?
한 달에 _____ 원 혹은 일 년에 _____ 원
33.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이유로 인한 활동 또는 교회를 위한 활동을 한 주 동안 평균적으로 몇 시간 정도 했나요?

공동체적인 종교 활동

34. 얼마나 자주 예배를 보나요?
1. 일주일에 한번 이상
2. 매주 혹은 그보다 자주
3.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
4. 매달 혹은 그 정도
5. 일 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6. 전혀
35. 예배를 제외하고, 그 외 예배와 관련된 활동들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나요?
1. 일주일에 한번 이상
2. 매주 혹은 그보다 자주
3.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
4. 매달 혹은 그 정도
5. 일 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6. 전혀
36. 현재 당신의 종교는 무엇인가요?
만약 개신교도인 경우, 어떤 교단에 속합니까?

전반적인 자기-순위

37. 당신이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1. 매우 종교적임 2. 중간 정도로 종교적임
3. 약간 종교적임 4. 전혀 종교적이지 않음
38. 당신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1. 매우 영적임 2. 중간 정도로 영적임
3. 약간 영적임 4. 전혀 영적이지 않음

의미

39. 내 삶의 사건들은 신성하고 더 큰 계획에 따라 펼쳐진다.
1. 매우 그러함 2. 대체로 그러함
3. 약간 그러함 4. 전혀 그렇지 않음
40. 내게는 삶에 대한 사명 또는 소명의식이 있다.
1. 매우 그러함 2. 대체로 그러함
3. 약간 그러함 4. 전혀 그렇지 않음

기타

* 만약 종교를 믿고 계시다면, 종교생활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